하나님 결정을 엎는 훈수기도

(이사야 38:1~22)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6.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 도를 물러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결정을 엎는 훈수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결정을 엎는 훈수기도'
당나귀를 팔러 가는 부자에게 사람들이 훈수를 두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가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당나귀를 타고가지 왜 끌고 가느냐?"라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워서 갑니다. 그런데 또 길을 가고 있자니 할아버지가 이들을 욕합니다. "말세야 말세, 아버지는 걷게 하고 어린놈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라고 혀를 찹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과 바꾸어 탔습니다. 또 한참 가다보니 이번에는 아낙네들이 아버지를 욕합니다.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가 타고 가다니 저런 몹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들과 아버지는 같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또 한참 가다보니 어떤 사람이 "당나귀가 불쌍해 죽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훈수의 위력

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훈수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바꾸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훈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모든 인간의 삶을 진행시키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뛰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뛰시는 경기장에 난입하게 되고 선수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삶의 현장에서 선수로 뛰시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훈수가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메시이고 호날두이고 히딩크 감독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했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했어야 한다고 훈수를 둡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의 의미로 죽음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애를 정해놓으셨음을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수로 뛰시며 결정해놓으신 이 죽음의 때를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번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훈 같은 오해를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과정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결정 자체를 번복하게끔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결정을 번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시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더 현명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뜻을 존중하셨다는 것일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일까요? 혹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다가, 기도를 듣고 보니 사랑이 충분해지셔서 결정을 바꾸셨다는 것일까요? 죽이기로 결정하셨을 때에는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가 히스기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보고서야 참 불쌍하다고 여기셔서 바꾸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어법적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신 것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자 손수 선수로 뛰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반어법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교훈 삼으라는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지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진행하시는 선수가 되셨고, 성도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결코 이러한 훈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앗수르의 2차 침공에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1차 침공을 받아서 앗수르에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안심하고 있다가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삶의 선수이고 자기는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응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 행했던 훈수의 기도인 것입니다.
앗수르의 침공 이전에도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앗수르가 침입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보다 앗수르를 더 크게 실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선수가 되어서 뛰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의 손을 빌렸습니다. 이것이 앗수르의 1차 침입 때의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이에 두고 앗수르의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중간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침공 때의 히스기야는 완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수로 뛰는 것을 순수하게 응원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하나님께 훈수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신앙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뛰시는 것에 대해 호불호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과 백합화 한 송이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도해서 그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훈수를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복지의 삶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비록 이른 나이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결정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완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채 하나님께 훈수를 두려는 단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후사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죽었다면 왕의 자리는 형제나 친척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오 년 연장을 받고 삼년 만에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훈수를 둔 결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매우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후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결정을 번복하심을 통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야 말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수명을 연장 받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방문합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앗수르의 기세에 눌려 아직 약소국이었던 때입니다.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은 앗수르를 대항할 목적으로 사신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했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면서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앙의 근원이 됨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39장 6~7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경고의 차원에서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훈수기도로부터 시작된 병 고침과 바벨론의 사절 방문 같은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멸망의 경고가 사실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치유 받고 태어난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좋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이하를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악행들을 요약해보면 아버지가 허문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경배하여 섬기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최종적으로 9절을 보면 “…므낫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절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더럽고 추악하게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합한 것이 므낫세 한 사람의 행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서 시작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 털어서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은 결과로 태어나게 된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멸망이 예언되는데 그 이유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라고 언급됩니다. 여호야김은 므낫세로부터 후대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멸망을 확정지은 존재로 일컬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이 모든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래도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기도를 하였을까요?
이것을 알고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히스기야는 최악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는 크게 회개함으로써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고 평가받는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번복된 기록이 또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십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간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멸절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물론 이 모세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고자 한 것이고,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로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 고작 몇 달 뒤에 가데스바네아 정탐 사건에서 하나님을 다시 거역합니다. 이때에는 모세도 죽이고자 했을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장정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정에 착오가 있으셔서 번복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참 절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므낫세나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바가 없었을까요?
심지어 므낫세도 말년에 회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므낫세와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까지도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훈수를 두는 기도를 하게 될 것과 그로인해 병이 나아서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우쭐댈 것, 므낫세가 태어나서 악행을 저지를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훈 삼으

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선수에게 가장 불편한 일은 응원하는 사람이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히스기야를 도구로 삼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연극을 하시듯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죽을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훈수 두는 기도를 통하여, 므낫세나 아몬 같은 패륜적 영성을 가진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과 연결시키시며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젊은 나이에 죽도록 결정하셨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인생과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최선입니다. 이 결정을 번복하려는 훈수의 기도를 하고 설령 응답받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악한 결과 밖에는 낳지 못합니다. 당나귀를 메고 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도 순교당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자면 제 명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삶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고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수되시고 나는 응원하는 타락 이전의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삶이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해서 훈수 두는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성군 아래에서 므낫세와 같은 가장 패역한 왕이 태어나는 배경에는 하나님께 훈수 두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훈수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당나귀를 메고 가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삶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젊은 나이에 죽더라도 최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절대 신뢰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

서. 하나님이 선수되셔서 이끄시는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에덴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